황선홍호 올림픽축구 최종예선 오늘 개막

AFC U-23 아시안컵서 일본·중국·UAE와 한 조
올림픽 본선 진출권 3.5장… 3위까지 파리 직행

한국 남자축구가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대업에 도전한다.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이 15일 오후 10시(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하는 호주-요르단 경기를 시작으로 19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U-23 아시안컵은 2년에 한 번 열리는 대회인데, 올해처럼 올림픽의 해에 열리는 대회는 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한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2024 파리 올림픽 본선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아시아에는 올림픽 본선 진출권 3.5장이 배정됐다.

이번 대회 결승에 진출한 두 팀과 3·4위 결정전에서 승리한 한 팀이 우선 3장의 티켓을 가져간다.

4위 팀은 2023 U-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4위인 기니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해야 파리로 갈 수 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대표팀의 1차 목표는 올림픽 본선 진출이다.

1988년 서울 대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개근한 한국은 이번 대회 본선에도 오르면 10회 연속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는 신기록을 쓴다.

앞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본선에 진출했을 때 이룬 '8회 연속' 진출부터 세계 첫 기록이었다.

그런데 황선홍호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역대 가장 어려운 올림픽 최종 예선이 될 거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각 조 2위까지 8강에 진출하는 가운데 한국은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UAE)와 B조로 묶였다.

한국 축구는 최근 들어 일본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2022 U-23 아시안컵 8강과 2023 U-17 아시안컵 결승 맞대결에서 거푸 0-3으로 패하는 등 연령별 대회에서의 약세가 두드러진다.

여기에 더해 거칠게 나오는 경향의 중국 역시 껄끄러운 상대다.

황선홍호가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것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마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 17일 오전 0시 30분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UAE를 상대로 1차전을 치른다.

이어 19일 오후 10시 중국, 22일 오후 10시 일본과 차례로 대결한다.

황선홍호가 최근 2연승을 포함해 상대 전적 2승 1패를 기록 중인 UAE와 첫 경기를 치르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황 감독은 "해외파 차출과 부상 이슈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대회를 치르다보면 그런 일들은 많다"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따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각장애 태권소년 오현우 전국대회 동

전국종별태권도 중등부 페더급 4강전 1-2 접전 끝 패배

제주 오현우(오현중 2)가 청각장애를 딛고 전국대회 동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뤄냈다.

오현우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2024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중등부 페더급에서 준결승에서 최문결(광주체육중)과 3라운드까지 접전 끝에 1-2로 패해 3위에 올랐다.

오현우는 16강에서 정애윤(웅남중)을 2:0으로 가볍게 물리치고 8강에 진출한 후 준준결승에서도 오승원(강북중)을 2-1로 제치고 4강전에 진출했다.

선천성 난청으로 평상시 양쪽에 보청기를 끼고 생활하는 오현우는 경기 중에는 규칙상 보청기를 착용할 수 없어 김형준 지도자와의 사인을 통해 소통하며 경기에 나서고 있다.

오현우는 지난달 30일 제주대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 2차 선발전 및 최종 선발전에서 제주대표로 선발돼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한다.

오현우 선수와 김형준 지도자.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이정후 MLB 개인 두 번째 2루타

5경기 연속 안타 행진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두 번째 2루타를 쳤다.

이정후는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방문 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5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5회에 시원한 타구가 나왔다.

샌프란시스코가 2-1로 앞선 5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 볼카운트 1볼에서 이정후는 탬파베이 오른손 선발 라이언 페피오트의 2구째 시속 143㎞ 슬라이더를 받아쳐 우익수 왼쪽으로 향하는 2루타를 쳤다.

이정후는 MLB 개인 두 번째 2루타로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다음 타자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가 우중월 투런 아치를 그려 이정후는 시즌 6번째 득점도 올렸다.

하지만,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는 달성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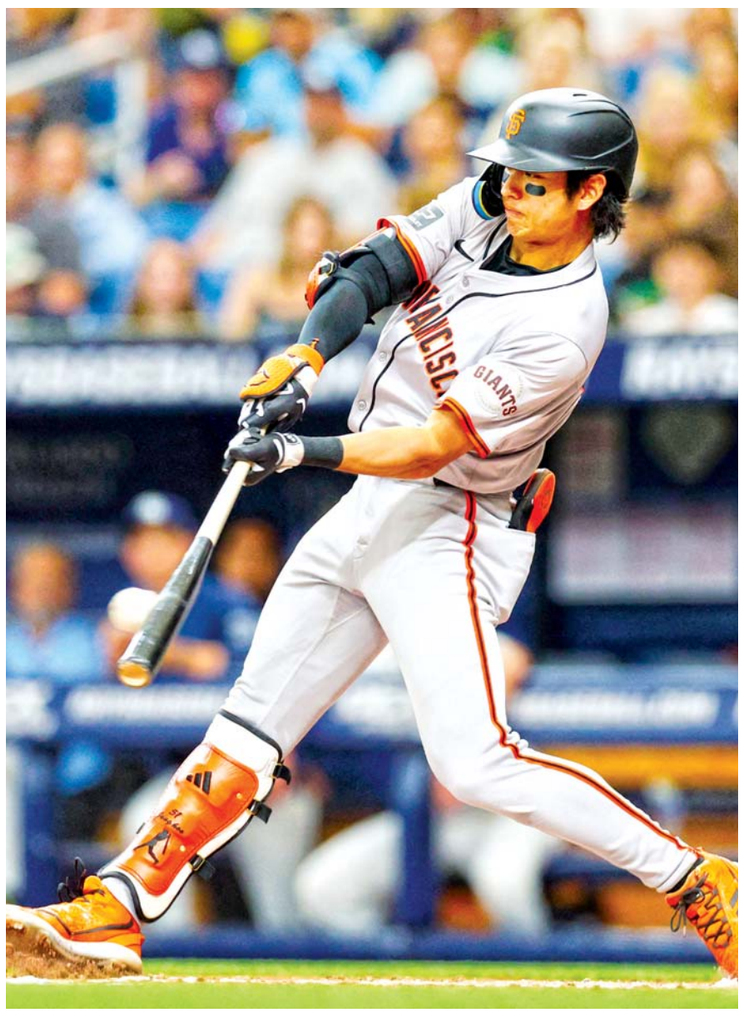
이정후는 1회 첫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에 그쳤고, 3회에는 페피오트의 시속 155㎞ 빠른 공에 배트를 헛돌려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이정후의 6번째 삼진이다. 스탯캐스트에 따르면 이정후는 이날 전까지 헛스윙을 5번만 했는데, 3회 타석에서는 페피오트의 2구째 슬라이더, 4구째 직구에 헛스윙했다.

두 번의 타석에서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선 이정후는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강한 타구로 2루타를 만들며 만회했다.

6회에는 불운했다.

1사 2, 3루에서 이정후는 크리스 데븐스키의 시속 148㎞ 직구를 받아쳐 시속 165㎞의 빠른 타구를 만들었지만, 2루 근처를 지키던 탬파베이 유격수 호세 카바예로에게 걸렸다. 카바예로는 귀루하지 못한 2루 주자 패트릭 베일리를 태그하면서도 더블 플레이를 완성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50에서 0.246(57타수 14안타)으로 조금 떨어졌다. 이날 샌프란시스코는 홈런 5방을 몰아치며 탬파베이를 11-2로 눌렀다. 연합뉴스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탬파베이와 방문 경기,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5회 2루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Utd 홈 2연승 실패… 김천에 완패

제주유나이티드가 홈 2연승에 실패했다.

제주는 지난 13일 오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김천 상무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7라운드에서 0-2로 패했다.

제주는 전반 34분 김현욱과 종료 직전 강현묵에게 잇따라 골을 내준 후 만회골을 위해 후반 공격적으로 압박했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제주는 진성욱과 서진수를 투톱에 배치하고 연제운과 이탈로가 중원을 맡았지만 김천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제주는 이날 패배로 시즌 첫 3연승과 홈 2연승 도전을 실패로 돌아갔고 시즌 3승1무3패(승점 10)로 리그 4위에 머물렀다.

제주는 오는 17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천안과의 컵대회 경기를 치르고 20일에는 K리그1 8라운드 수원 원정에 나선다.

올 시즌 홈에서 두 번째 패배를 당한 김학범 감독은 "홈 팬들에게 죄송스러운 경기를 보여줬다"며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제압당해 할 말이 없다"고 완패를 인정했다. 위영석기자

세계 1·2위 조코비치·신네르 맞대결 무산

결승 맞대결이 기대됐던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얀니크 신네르(2위·이탈리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몰렉스 몬테카를로 마스터스(총상금 595만575유로) 단식 4강에서 탈락했다.

조코비치는 14일(한국시간)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대회 7일째 단식 4강전에서 카스페르 루드(10위·노르웨이)에게 1-2(4-6 6-1 4-6)로 졌다.

조코비치는 2015년 우승 이후 지난해까지 이 대회에서 한 번도 4강에 들지 못하다가 올해 9년 만에 4강에 올랐으나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